

서울 전통사찰 17곳 방재시스템 구축

서울시, 올해 18억원 투입

서울시 전통사찰 17곳에 올해 안으로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한 방재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5월 6일 '2014년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일반에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사찰이 각종 도난과 화재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는 국비 포함 18억4600만원을 17개 사찰에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국비 40%, 시와 자치구, 사찰이 각각 2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수사업에 9억 원, 방재시스템 구축에 9억46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로의 소림사와 도봉 천축사, 성북 봉곡사는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대각사·문수사(종로) △보문사·정법사(성북) △호암사(금천) △관음사(관악) 등은 보수정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적조사(성북)를 비롯 △옥천암(서대문) △성주암(관악) △연화사(동대문) △약사사(강서) 등에는 방재시스템이 구축된다.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누전, 함선 등 전기화재 원인을 예측하기 위해 경보기 및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12년 7개, 지난해 13개에 완료됐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시내 전체 전통사찰 총 58개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종교 등 각계 원로들 새 한국 국민운동 전개

15일 운동본부 발족식

종교·경제·문화·학술 등 우리 사회 각 분야 원로 118명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총력을 모아 새 한국을 만들어 내자"며 범국민 운동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5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우리 사회 책임 윤리의 부재, 안전 불감증, 고발정신 부재 등의 병폐가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혁에 참여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우리나라를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월주·성타 스님이 참석했으며, 김진홍·손인웅·이수영·이영훈 목사, 이한택 주교 등 종교계 인사와 시민운동계 박상중·서경석씨, 문화계 북거일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사찰 중첩 규제 해소돼야 전통문화 발전"

조계종, 6.4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 제안서 배포

전통 사찰과 불교에 대한 중첩 규제는 불교문화 발전과 보존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전통사찰 등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고 문화재보호법은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소유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은 현대 건축물과 전통 건축물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획일 적용 중이다.

6.4 지방선거에 앞서 이 같은 규제 법령들을 해소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담은 자료집이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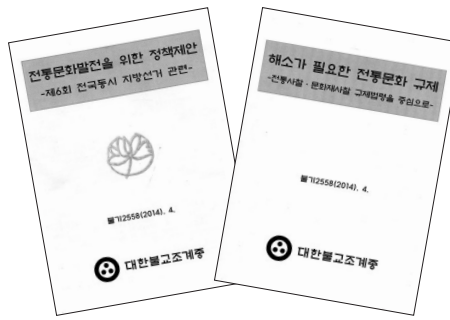
조계종 기획실은 5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해소가 필요한 전통문화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각각 제작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그간 불교 발전을 옥죄고 있는 중첩 규제 법령은 총 18개. 이중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령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전기 사업법/ 전기의 기본 공급약관 등 7개 법령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조계종은 전통사찰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와 △자연공원법 제정도 △전통사찰 건축법 적용 제외 △사찰 내 장사구역 설치 △봉안당, 자연장지 상한선 제한 폐지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규제 만능주의에 묶여



조계종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 배포한 전통문화 발전 정책 제안 자료집.

- 문화재보호법·장사법 등
- 규제 개혁 법률만 18개
- 중첩 규제법 해소 필요
- 전통사찰 담당부서부터
- 지역 역사교육 강화 등
- 문화 발전 정책 제안도

거친 숨을 내쉬는 역사와 문화라는 생명체가 있으며, 그중 가장 힘든 숨을 내쉬는 존재가 문화재 사찰과 전통 사찰"이라며 "자료집에 내용들은 실제 규제이기도 하고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제안했다.

조계종은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문화재·전통 사찰 중심 전통 문화 지원 육성 △불교관련 규제정책 해소 및 규제법령 개정 △사찰 '숲' 활용 생태보전·친환경 정책 △지역사찰 연계 문화사 회복지 활동 및 시설확충 지원 △역사교육 강화 △차별 없는 행정 등 7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을 내놨다.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대해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활동 강화, 방재사업 지원 등 전통사찰 보호 노력 강화, 전통문화정책 담당 부서 시

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수행환경 침해 요소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유무형 문화재 보존 노력을 확대하고 사지 복원 조사 사업 지원, 템플스테이 적극 활용, 안내 표지판 일제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하며, 사찰 '숲' 활용해 사하촌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수목장 등 자연장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 조례 제정과 후보자의 종교적 중립 선언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천 스님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불교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자료집을 만들었고, 전국 사찰과 국회와 주요 정당에 배포했다"면서 "자료집을 통해 스님들은 후보자들에게 정책 기조를 제안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전통문화 발전 정책을 공유했으면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곧 공개되는 뉴욕커 사로잡은 보원사 철불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반출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 지난 2월 막을 내린 전시에서 뉴욕커를 매료시킨 문화재는 보원사 철불이었다. 이 거대한 철불은 아직 국내나 보물로 지정조차 안됐지만, 현지 학자들은 서양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도의 기법으로 평가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한 보원사 철불은 5월 2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실에서 만날 수 있다. (차주 상보) 글=신성민 기자·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클릭 한번에 조계종 사찰 소식 '한눈에'

조계종, 통합정보사이트 오픈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소속 사찰과 단체의 소식을 한 곳에서 소개하는 '조계종 통합정보 사이트(이하 통합정보 사이트)'를 선보인다.

통합정보 사이트는 종단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사찰, 및 불교 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RSS

방식으로 서로 연결해 각종 소식들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각 사찰과 단체의 홈페이지 담당자가 게시물을 등록하면 홍보자료, 사진, 동영상 등이 자동으로 연동돼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것이다.

조계종 기획실은 "현재 통합정보 사이트에는 교구본사와 직영사찰을 비롯한 33곳, 관련기관 15곳의 사이트가 연동돼 있



조계종이 오픈한 '통합정보 사이트' 첫 화면.

다"면서 "종단은 향후 사찰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동 사이트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서울 강남에 힐링센터 '어울림' 들어선다

총지종, 5월 25일 개원... 명상·치유 등 40개 강좌 개설

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이 서울 강남에 종합힐링센터를 열고, 국민 힐링과 치유에 본격 나선다.

불교총지종은 5월 25일 서울 강남 총지사 문화관에서 종합힐링센터 '어울림' 개원식을 시작으로 상담, 심리치료, 명상, 요가 등 9개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개원에 맞춰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 이사이며 위빠사나 명상지도자로 유명한 자가라 스님 초청 위빠사나 강좌가 6개월 간 열릴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희대 후마니카스 칼리지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 진행하며 크게 △공공감과 소통 △명상의 세계 △비움의 여행 △살아있는 음식 △살의 철학·문학 △심신의 치유 △자기개발 △치유의 예술 △행복한가정의 9개 분야로 나뉜다.

연극과 음악, 미술 등 예술치유와 요가, 태극권 등 심신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공공감과소통 분야에서는 스트레스와 춤(최경실)/에니어그램(강운근)/치유와 회복의대화(김점란)/성격이해와 갈등개선(박상영) 등이 진행된다.

총지종은 내년 6월에는 세계 각지의 힐링 리더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힐링캠프를 4박 5일간 열 계획이다. 힐링캠프에는 국제심포지움과 워크숍이 포



어울림 센터가 들어선 총지문화센터.

함돼 있다. 또 5월 23일 과산수련원을 개원에 맞춰 어울림센터를 연계해 향후 1박 2일 집중수행프로그램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울림 센터장을 맡은 김종인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경희대 교수)은 "우리사회 힐링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족과 직장 내 소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어울림'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한성대 중독예방교육원 등 학계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501-903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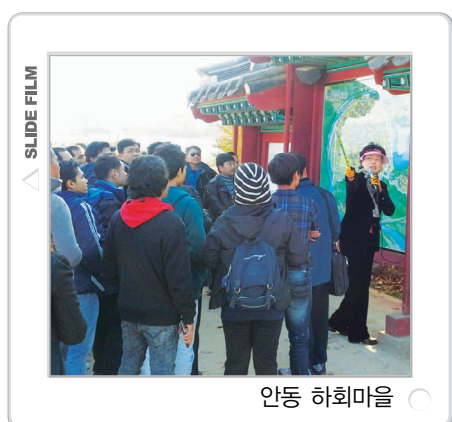
제2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전통문화체험 참가안내

국내 이주노동자 20만 시대, 대한불교천태종은 청소년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 참여 안내

- 일 시 : 2014년 6월 28일(토) ~ 29일(일)
- 장 소 : 충북 충주 세계미술박물관 수안보 제천 단양 일원
- 참가인원 : 이주노동자 55명 / 청소년 20명
- 참가신청 기간 : 2014년 5월 21일 ~ 30일
- 참가자격 :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및 상담 / ☎ 02)723-1559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서울사무소



안동 하회마을



전통 짚풀공예품 감상



전통복장한 어르신과 함께



하회마을 체험



세계탈박물관 견학